

2019 국제입법학회

로마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성과

앞으로도 국제입법학회(IAL)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학술대회 개최, 입법관련서적 출판 및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것이고,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도 IAL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송영선(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전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김계홍 원장과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연구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와의 네트워크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IAL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리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다녀왔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IAL 총회 참석과 집행 이사진과의 간담회의를 통해 KLRI-IAL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IAL이 주최하는 “입법에 대한 신뢰의 위기(The crisis of confidence in legislation)”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관련 해외 법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참가 기관 학자 및 실무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입법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배경

국제입법학회는 1991년 유럽입법학회로 출범하여 2008년 국제입법학회로 확대 발전하였고,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입법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년마다 총회를 겸하는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입법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는 리에주¹⁹⁹³, 로마¹⁹⁹⁵, 뮌헨¹⁹⁹⁷, 바르샤바²⁰⁰⁰, 아테네²⁰⁰², 베른²⁰⁰⁴, 헤이그²⁰⁰⁶, 비엔나²⁰⁰⁸, 리스본²⁰¹⁰, 노브고로드²⁰¹², 서울²⁰¹⁴, 워싱턴²⁰¹⁶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의 주요 활동은 입법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어떤 정책들이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입법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입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입법절차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살피고 그 의사를 반영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제정된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학회의 주된 관심 사항이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 러시아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입법학회 총회에서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IAL과 연구공조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특히 입법으로 초래되는 여러가지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때 더 좋은 법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연구교류협력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KLRI)-국제입법학회(IAL) 교류협력 성과

2012. 6	한국법제연구원 IAL 아시아지역 최초 기관회원으로 가입
2012. 9.	KLRI 개원 22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제입법학회 빔 보어만 회장 “각국의 RIA(규제영향분석)제도의 영향과 발전방향” 기조발제
2013. 4.	IAL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학술대회, 전재경 연구본부장 “한국의 정부입안표준 및 절차” 발제
2014. 9.	IAL 총회 및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 학술대회 공동개최
2015. 3.	IAL “입법과정에서의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Legislation)” 스톡홀름 학술대회, 이원 원장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크라우드 소싱” 발제
2017. 6.	KLRI-IAL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 학술대회 공동개최

이탈리아 의회 상원 및 루이지 스투르조 연구소 방문

본격적인 출장일정이 시작되는 10월 24일(목)은 IAL 총회 참석에 앞서, 이번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엘레나 그리글리오Elena Griglio 이탈리아 상원의원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의회 상원 의사당을 방문하여 참관담당직원으로부터 이탈리아 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탈리아는 5년 임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내각책임제국가로, 헌법은 법률제정권, 정부신임 및 불신임권, 정부감독권 등의 의원의 권한을 상원과 하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 상원은 주단위 비례대표제 선출직과 비선출직으로¹ 구성되며, 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선출자격에 있어서 315명의 상원은 최소 40세 이상, 630명의 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피선거권을 가지며, 상원에 대한 선거권은 25세 이상, 하원은 18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1. 전직 대통령 또는 사회, 과학, 예술, 문학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시민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



이탈리아 상원 마다마 궁전(Palazzo Madama) 전경



국제입법학회 총회장



2세션 발표자인 이탈리아 의회 상원의원과 함께

2.

연구소는 이탈리아 기독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며 1919년 이탈리아 인민당을 창당한 루이지 스투르조에 의해 1951년 6월에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역사, 사회, 정치, 법률 및 경제분야의 연구활동과 공무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기록 보관소와 도서관에는 정치가토릭에 관한 풍부한 기록물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오후에는 IAL 총회가 열리는 루이지 스투르조 연구소 Istituto Luigi Sturzo² 를 방문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학술활동의 성과, 온라인 시스템 활용 방안 강화 및 향후 학술대회 계획 등이 공유되었고, OECD 등 회원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방안도 모색되었다.

국제입법학회 집행이사진과의 간담회의 및 학술대회 참가

다음 날인 25일(금)에는 전날 총회에서 논의된 차년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연구원 출장진과 IAL 집행이사진 간 간담회의가 개최되었다.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연구원과 IAL이 협력하여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탈리아 의회 상원 도서관에서 열린 “입법에 대한 신뢰의 위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각국의 입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증진방안에 관한 동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제1세션에서 “규제문제로서의 입법에 대한 신뢰”의 발표자로 나선 로마3대학 마리아 데 베네데토 Maria De Benedetto 교수는 신뢰의 세 가지 중심 개념을 소개하고, 신뢰의 위기는 법집행에 있어서 부패, 규제실패, 비효율, 고비용 등의 이유로부터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의회와 정부, 사법부, 언론, 이해관계자 및 기타 규제기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입법에 대한 신뢰 복원을 위한 전략으로 입법의 질, 의회의 역할, 법제도 시행 등 각 부문별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이탈리아 상원의 엘레나 그리글리오 의원이 “의회의 전략적 역할”을 제목으로 민주적 정통성의 위기로서 입법의 위기, 어떻게 더 좋은 규제가 입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규제를 위해 의회가 전략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 좋은 규제 절차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입법의 질 제고를 위해 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제하였다.

제3세션 “입법에 대한 신뢰 개선에 있어서 의회의 책임”에서 발제자로 나선 파트리샤 포프리에 Patricia Popelier 벨기에 안트워프대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의 발제에서 유럽 각국의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3단계 방법으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잘 준비된 법률(1단계), 더 강력하고 정당한 기대치 허용(2단계), 신뢰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3단계)을 제안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집행이사회 간담회의 이후 기념촬영

(좌측부터 송영선 전문위원, João Tiago Silveira(포르투갈 리스본 대학 법대 교수), 김윤정 실장, 김계홍 원장, Patricia Popelier(벨기에 안트워프 대학 법대 교수), Helen Xanthaki(IAL회장, 영국 런던대학교 법대 교수), Wim Voermans(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법대 교수), Claudio Radaelli(영국 런던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Mauro Zamboni(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대 교수), 최경호 부연구위원)

제4세션에서 “제정 법률의 기동으로서 신뢰와 인정”을 발제한 빔 보어만^{Wim Voerman}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협조적 일상생활의 기본요소로 신뢰와 인정을 전제하고, 입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법을 준수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증명된 이론이나 경험적 증거가 아닌, 법 준수에 대한 본능 및 직관에 기초하여,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 행위자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성과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해외 법제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의 학자 및 실무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국제입법학회와는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특히,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국제기구의 실무가들도 발제와 토론으로 적극 참여하며 학술적 접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입법과 그 시행을 위해 각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입법학회와 실무를 맡아 물심양면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탈리아 공동주관 기관 및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국제입법학회^{IAL}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학술대회 개최, 입법관련서적 출판 및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것이고,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도 IAL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기대한다.